재조명된 거문도 주민들의
독도 출어

영남대 독도연구소 현지조사 성과
주민이 남긴 어업 활동기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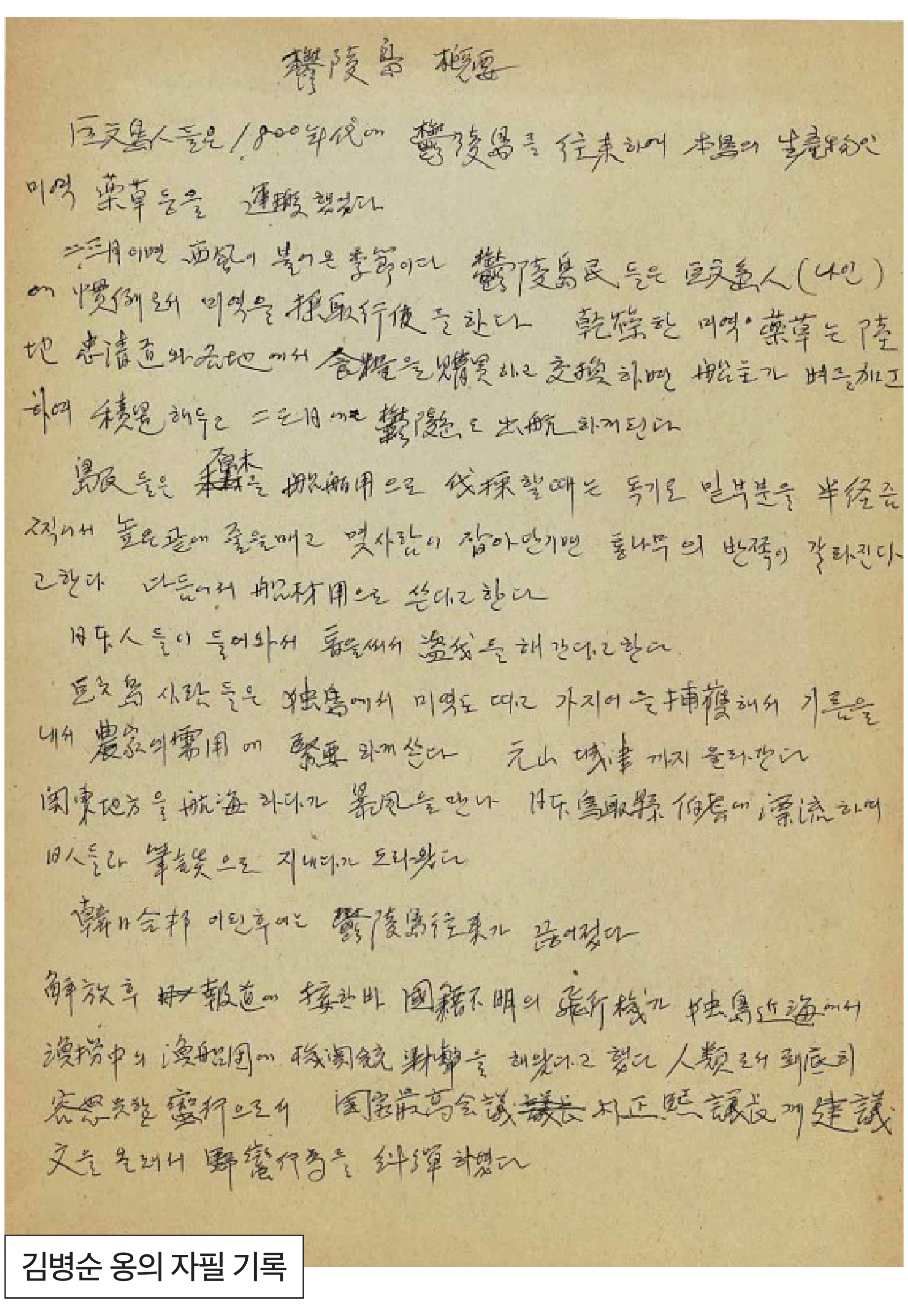
글 김수란 **정리** 박선경 **자료제공** 영남대 독도연구소 박지영 교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팀이 출간한 '울릉도·독도 관련 거문도 자료 Ⅰ, Ⅱ'는 옛 전라도 어민들의 독도 어업 활동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을 담았다. 이 자료는 거문도 주민의 울릉도·독도 어로 활동을 재조명하고 거문도 사람들의 독도 도항과 관련한 논거를 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거문도 지역주민의 자료를 찾아

20세기 초반에 울릉도에서 이루어진 거문도 지역주민의 활동은 사료 속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목적 또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독도연구소는 사료 외에도 독도를 예로부터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영유권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자료인 울릉도, 독도 관련 거문도 자료들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환동해문화권 울릉도·독도 자료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여수와 거문도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1차 현지조사는 2018년 1월 거문도와 여수 시내 흥국사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 독도연구소와 인하대 정태만 교수의 공동조사로 이루어졌다. 이후 같은 해 2월 실시된 2차 조사에서는 거문도를 비롯한 초도와 손죽도, 여수 삼산면 일대를 대상으로 한 광역조사를 실시했다.


김병순 옹의 자필 기록

김병순 옹

김병순 옹의 자료 사진들

기록광 김병순 옹의 기록들

거문도 현지조사를 통해 독도연구소가 수집한 상당수의 기록들은 거문도에서 평생을 살다 지난 2010년 생을 마감한 김병순 옹의 아들 태수 씨(76)를 통해 입수된 것이다. 아버지 김 옹의 기록은 약 1,4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고인이 된 김 옹이 직접 모으거나 작성한 기록물이다. 기록물은 자필 메모, 문서와 서류, 신문 스크랩, 사진 등 종류도 다양하다.

독도연구소가 입수한 이 기록에는 거문도와 인근 초도 등 주민들의 생활사와 관련해 울릉도, 독도에 관한 여러 귀중한 기억이 담겨 있다. 기록광인 김 옹은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과 주민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1960년대부터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문도인들은 1800년대에 울릉도를 왕래하며 본도의 생산물인 미역, 약초 등을 운반했었다. …(중략) 도민들은 원목을 선박용으로 벌채할 때는 독기(도끼)로 반경(半徑)쯤 찍어서 높은 끝에 줄을 매고 몇 사람이 잡아당기면 통나무의 반쪽이 갈라진다.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톱을 써서 도벌(盜伐)을 해간다고 한다." - 김 옹의 자필 기록 중 일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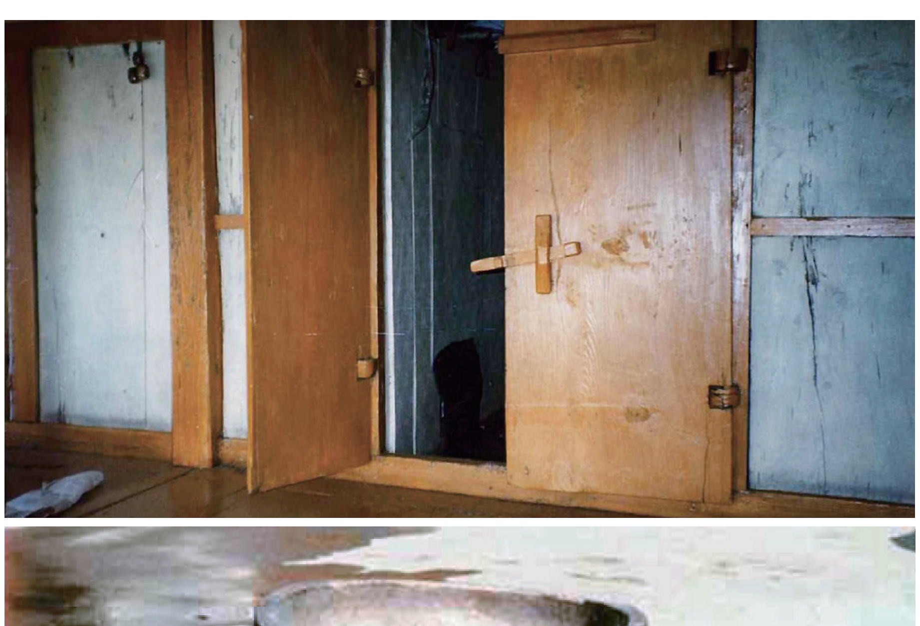
김 옹은 거문도 주민들이 울릉도에서 가져온 목재를 사용해 만든 주택과 함지박도 사진으로 남겨뒀다. 독도연구소는 이를 "거문도 주민들이 울릉도에 다녀갔다는 명백한 물증"이라고 설명했다.

생존을 위해 택한 울릉도·독도행

거문도는 구릉지가 많고 토양층이 얇으며 바람이 세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이런 거문도 주민들에게 울릉도·독도 원행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당시 나라에서는 울릉도 입도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일본인들이 몰래 들어와 제멋대로 나무를 베어가고 어로 활동을 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항해에 능하고 진취력이 강한 거문도 사람들에겐 불법이며 먼 거리였지만, 울창한 숲과 풍족한 해산물이 존재하는 울릉도가 원행에는 안성맞춤인 셈이었다. 주민들은 가져온 뗏목(목재)으로 집을 짓거나 가재도구를 만들었고 새로운 울릉도 원행을 위해 서해바다로 나가 울릉도의 건어물과 해조류를 서해안 곳곳의 포구에서 팔았다.

1937년 출생해 여수 삼산면장을 역임한 박종산 씨의 증언도 거문도 주민들의 독도 활동을 증명한다. 채록한 증언에 의하면 1900년대 초반 거문도 사람들은 울릉도에서 고기잡이 보다 미역 채취를 주로 했으며, 때때로 독섬(독도)를 방문해 강치를 잡기도 했다. 잡은 강치에서 기름을 채취해 거문도로 가져와 호롱불 등의 연료로 사용했는데 이를 전라도 방언으로 '애우지름'이라고 했다고 한다.

울릉도 목재로 건축된 집



울릉도 목재로 만들어진 문(위) / 울릉도 목재로 만든 함지박(아래)

안용복 도일 기록속의 전라도민들

여수와 순천 지역민들이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했다는 건 1693년 안용복 등이 일본으로 납치됐을 때의 진술에도 나온다. 안용복은 당시 울릉도로 건너가게 된 경위를 말하면서 울릉도에서 배 3척이 조업하고 있었는데 그중 1척이 순천의 배라고 했다. 당시 순천은 순천과 여수 일대를 통괄하는 지명으로 거문도 또한 순천부에 소속된 섬이었다.

또 숙종실록, 비변사등록 등 사료에 따르면 1696년 안용복의 2차 도일 당시 순천(順天)의 승려 뇌헌(雷憲), 승담(勝淡), 연습(蓮習), 영률(靈律), 단책(丹責) 등과 함께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가서 일본국 백기주(伯耆州)로 간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여수, 순천 지역 주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로 도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독도로 불리는데 기여한 전라도 어민들

독도가 지금의 독도로 불리게 된 데에도 전라도 어민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남해안 지역에서는 돌섬을 '독섬'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 어민들이 독도로 출어하면서 '순 돌로만 되어있는 섬'이란 의미로 '돌'의 전라도 사투리인 '독'을 사용한 것이 독도의 어원이 됐다. 이 독섬이 훗날 한자로 표기하면서 음차하여 독도(獨島)로 표기한 뒤 지금까지 '외로운 섬'처럼 인식된 것이다. 지금도 일부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독섬', '돌섬'으로 부르기도 한다.

당시 거문도가 속해있던 흥양현인 현재의 고흥군에는 실제로 독도(獨島)라고 표기하는 무인도가 금산면 오천리 앞바다, 남양면 장담리 옥천마을 앞바다 등 2개나 있다. 남양면 장담리 옥천마을 앞에 돌로 된 섬을 주민들은 독섬이라 부르는데 반해, 지형도에서는 독도(獨島)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독도의 어원이 더욱 분명해진다.